

## 민담 ‘손 없는 처녀’에 나타난 여성주의적 여성 심리 이해 - 여성 정체성 발달단계 모델에 기반하여 -

이 다 감<sup>†</sup>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형제의 민담 ‘손없는 처녀’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여성주의 시각에서 여성의 심리 발달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그림형제(Brothers Grimm)의 민담 ‘손 없는 처녀(The Handless Maiden)’는 한국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담이 주는 원형적 상징의 메세지 또한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는 여성주의 시각에서, 여성심리의 이해를 시도 하였다. 민담 속 여주인공의 ‘손의 절단과 재생을 주도성의 상실과 재생’으로 연결하여, Downing& Roush의 ‘여성정체성 발달 5단계’ 모델과 함께 살펴보았다. 아버지에 의한 ‘손’의 절단과 함께 주도성이 상실되는 1단계 소극적 수용, 아버지와 분리하며 주도성의 회복이 시작되지만 은 손을 만들어주는 왕에게 의존하는 2단계 눈 뜸, 다시 재분리와 주도성의 성장으로 숲으로 들어가는 3단계 새겨뚱, 손의 재생과 주도성이 확립되는 통합의 4단계, 두 손의 재생과 함께 주도성과 친교성의 통합이 일어나는 마지막 5단계 적극적 참여의 과정을 밟는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민담 속 여주인공은 가부장제 사회라는 외적 조건에 의해 내면화 된 몸, 마음, 감정의 언어를 해체하고 새로운 자신의 언어를 주체적으로 찾아나간다. 본 연구의 의의는 외적 조건이 여성의 내면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고, 더 나아가 손의 상징인 주도성이 여성 정체성 발달 단계에 따라 주체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여성심리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는데 있다.

주요어: 민담 손 없는 처녀, 여성주의, 여성심리, 여성성, 가부장제, 주도성, 여성 정체성

† 교신저자 : 이다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자아초월상담학전공,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9길 10-8, Tel : 010 9959 4436, E-mail : motherpeace@hanmail.net

## 들어가는 말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성에 기대되는 사회적 행동양식을 성역할(gender role)이라고 한다. 성역할은 가정, 사회의 관습들을 통해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강화되며, 남녀의 지배-피지배 패턴, 사회적 불평등을 발생시킨다(장휘숙, 2002).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러 문화에 걸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의 주요 특성은 '이성적, 객관적, 독립적, 목표 지향적인 것'으로, 여성은 '감성적, 주관적, 의존적이며 수동적인 것'으로 설명되어 진다(Parson & Bales, 1955). 이처럼 사회가 기대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성은 자신만의 감성, 수용적인 면을 외부의 여성에게 제공받길 기대하며, 이성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부분만을 강화시켜 과도한 성취, 공격성, 우월성을 발달시킨다. 여성 또한 사회가 기대하는 순종적인 역할에 자신을 맞춰, 외부의 남자의 힘에 자신을 의존함으로써 자신만의 독립성, 진취성 등이 발휘될 기회를 억압당하게 된다. 이 결과는 남, 녀 누구에게도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우리는 여성적인 것들이 주는 선물, 진정한 힘의 근원에 대해 존중하고 개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오히려 평가 절하되며, 그 여성적인 본성 안에 내면의 남성성을 어떻게 포함시켜야하지를 모른다. 외부 가부장적 시스템은 어느 정도 변화였지만, 우리의 무의식적 신념은 대부분 그대로이고 우리 내면에는 이 가부장이 존재한다. 이 내면의 가부장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리를 통제하며 여성의 능력과 한계를 규정하고 여성이 하는 것은 하찮은 것으로 과소평가하고 폄하한다(Stone, 1997). 이런 외적시스템으로 인한 내면

화된 가부장의 목소리는 여성의 몸과 마음, 감정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긍정성을 상실한다. 그 대가로 몸에 대한 혐오와 지나친 다이어트, 섹슈얼리티의 억압, 그로인한 자기 비난과 열등감, 쓸모없음, 무력감, 억압된 분노와 우울 등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은 남성보다 세 배나 더 많이 우울증에 빠지며 두 배나 더 많이 자살을 기도 한다(Greenspan, 1995).

1970년 이후 여성운동의 다양한 흐름과 함께, 심리학 안에서도 여성주의 심리학자인 Horney, Gilligan 등을 시작으로 여성심리의 조건화의 요인을 찾아내고 재조명해내는 시도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최근 한국의 성폭력 피해 경험자들의 Me too, 그리고 With you 운동과 함께 억압된 여성들의 분노와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는 움직임 속에서 조건화된 외부, 내면의 가부장으로 인해 상처받은 여성심리에 대한 이해와 치유, 성장을 위한 노력은 집단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 순응하는 성 역할 속에 자신들의 몸, 감정, 심리를 무력화 시켜왔던 여성들이, 자신 안에 내재화되어있는 힘, 공격성, 직관 등을 자각하고 외부로 표현하는 것은 여성의 정체성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의존하던 존재가 주체적인 인격체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Jung 분석가인 이유경(2018, p. 45)은 '민담에서는 여성 주인공을 내세워 여성의 인격이 어떻게 주체가 되고 의식화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여성 주인공의 민담을 이해함으로써 여성의 개별 인격의 분화 및 성숙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으며, 민담의 이해를 통하여 혼란스러운 여성의 정체성이나, 분열된 인격에

대한 치유적 회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여성 인격발달의 여정을 담은 민담 가운데 '손 없는 처녀(Handless Maiden)<sup>1)</sup>'는 우리나라의 민담<sup>2)</sup> 중 비교적 많이 거론이 된 민담 중의 하나이며, 유라시아 대륙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손 없는 처녀(手無し娘)'라는 제목으로 100편 이상이 채록되어 있다(조현설, 2018). 민담 '손 없는 처녀'는 한 여성이 심리적으로 아버지와 분리되고 원형적인 여성성을 체험함으로써 독립적인 여성으로 개성화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손소영, 2007). 여성심리를 연구해온 Jung 분석가인 von Franz(1993), Estes(2013)와 Toyoda(2006)는 '손 없는 처녀'의 핵심 주제를 '여성의 희생'으로 해석했다. 특히 여성의 희생 가운데 감정 기능, 야생과 본능적인 자아의 상실, 여성의 창조성과 영성의 상실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자는 여성주의 상담자로 활동하면서 여성 내담자들이 보고하는 '손이 절단되는 꿈'들을 통해서, '손 없는 처녀'라는 민담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신화나 민담 속 남자 주인공들은 세상 속으로 영웅의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인데 반해, 여자 주인공들의 여정은 효도나 희생의 모티브를 담고 있다. 특히 아버지가 자신의 딸의 손을 절단한다는 이야기가 전 세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다. 더욱이 Jung의 제자였던 von

Franz(1993)는 "손이 없는 이 모티브는 넓게 퍼져 있는데 손이 없는 원인은 조금씩 다르며, 자신이 아는 한 손이 없는 모티브는 여성 영웅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한다.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여주인공의 '손의 절단'을 과연 인류의 보편적 상징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Jung 심리학적 원형 심리학에 대해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모든 원형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Pratt, 1985; Romaniello, 1992). 남성에게는 등장하지 않는 '손의 절단'이라는 민담을, 가부장적인 사회와 여성의 삶의 연관성을 중요시하는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연구가 현 시점에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다.

##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민담 '손 없는 처녀'에 나타난 여성심리

### 가부장제와 여성심리

가부장적인 제도는 여성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부성 상이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이유경, 2018). 독일의 사회학자 Georg Simmel은 "우리의 문명 전체는 남성의 문명이며, 젠더 문제가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인간의 문명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 여자들이 어떻게 남자들의 요구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적응해 왔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을 벗어던지는 것 또한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Horney, 2015).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가부장적인 제도에 기초한 한국 사회 또한, 여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적 관습 및 제도적 장치 모두 부정적인 부성상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

1) '손 없는 처녀'는 '색시', '아가씨' 등으로 불리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손 없는 처녀'로 용어를 통일한다.  
2) 설화, 동화, 민담을 본고에서는 '민담'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래 놓이게 된다. 아버지의 권력은 모든 것에, 그리고 그것을 기술하는 언어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 권력은 확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구체적이며, 상징적이고 실제적이다(Rich, 1995). 가부장제의 신념이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질서가 되어버린 이 시스템에 반기를 든 여성주의자들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는 모토로 개인적인 문제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Enns, 2009). 또한 여성 심리학자들은 심리학 내의 한 분야로 여성의 심리와 발달의 독특한 측면에 관심을 갖고, 남녀 간의 차이와 유사성을 연구하고 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장휘숙, 2002). 여성주의상담에서도 인간/여성은 조건화 속에서 자아를 형성한다는 것이고, 어린 시절(과거)의 미시적-외적 조건이 내면화되어, 성인(현재)의 미시적-내적 조건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거시적 조건인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여성들은 삶의 현장인 미시적 조건의 맥락에서 무력한-또는 무력함을 강요하는-위치와 여성역할(자녀양육, 가사노동, 보조역할 등)과 여성심리(상처받기 쉬움, 정서노동, 관계에 대한 민감성, 돌봄, 타인에게 서비스 등)를 할당받기 쉽다. 이런 것들이 개개 여성의 현재 미시적-내적 조건이기 쉽다는 것이다. 재조건화 시키려면 여성심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김민예숙, 2013). 발달심리학자인 Gilligan(1997)은 자율성, 명료한 판단력, 책임감 등이 남성에게 귀속되고 사랑과 감정표현에 대한 능력은 여성에게 귀속시킴으로, 일과 사랑이 단절된 것으로 귀결되는 기존 남성중심 심리학 이론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여성심리학의 선구자인 Horney(2006) 또한 “여성심리 조

건화의 요인은 여성의 몸, 여성에게 성역할을 요구하는 가부장제 문화이며, 딸이 소외되는 것은 프로이드의 남근선망과 딸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가부장제의 조건의 결과가 여성의 심리가 되고, 결국 가부장제 문화가 바뀌어야만 여성의 심리 변화가 가능” 하다고 보았다. 이렇듯 여성심리를 둘러싼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폄하된 여성 본연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노력과 연구는 이 사회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 민담 ‘손 없는 처녀’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의 필요성

민담은 인류의 원형적 스토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수많은 민담들이 하나의 공통된 주제라 하더라도 다양한 버전이 존재한다. 손 없는 처녀 또한 한국에만 다섯 개의 다른 버전이 있다. 1971년 임석재의 <옛날 이야기선집>에서 ‘손이 잘린 처녀’라는 제목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1983년 조희웅이 한국 설화유형에서 ‘손이 잘린 처녀’ 혹은 ‘팔 잘린 아내’로 알려진 이 민담을 손 없는 색시라고 부르자고 제안하여, 그 후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 민담을 ‘손 없는 색시’라고 부르고 있다. 독일의 그림형제가 수집한 ‘민담 손 없는 처녀’, 러시아 민담 ‘손 없는 소녀’, 이웃의 일본 민담 ‘테나시무스네’ 등 해외에도 다양한 버전이 존재한다(이유경, 2006). 우리나라의 경우 신연우(2002)와 이인경(2001)은 공통적으로 손 없는 처녀를 여성의 통과의례나 입문의례와 관련지어 Freud식 이론적 접근을 통해 심리학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Jung 분석가인 이유경(2006)은 우리나라의 ‘손 없는 처녀’ 민담 중

계모설화 버전을 선택하여,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여성의 인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모성 콤플렉스 문제와 극복의 과정을 제시했다. Hill(2016)은 Jung의 심층 심리학을 '손 없는 처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여성에게 손이 없는 느낌의 경험은 많은 측면의 '손실' 또는 '희생'을 나타내며, 여성의 잃어버린 상징적인 손의 재성장을 Jung의 개성화의 여정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융의 심층심리학을 기반으로 Johnson (1993)과 von Franz(1993)은 독일의 그림형제 동화 '손 없는 처녀'에 대해 부성 콤플렉스에 걸린 딸의 여성성의 희생, 특히 감정 기능의 상실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여성주의 융 분석가인 Estes(2013)와 Toyoda (2006)는 타고난 원초적 야생적 본능과 직관의 상실, 여성의 창조성과 영성의 상실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Estes(2013)는 민담이 원형적 스토리를 담고 있다하더라도, 어떤 문화의 영향으로 이야기의 근본 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여러 본(本)을 비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Guattari(2004)도 Freud의 개인의 산물, Jung의 집단적 원형의 상징체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 역사적 무의식을 이야기 했다. 사회 역사적 무의식이란 현재적, 사회적 배치(arrangement)가 중요하며, 이 사회적 배치가 개인의 무의식을 만든다고 보았다. Jung학과 분석심리학자인 Singer(1994)는 여성의 꿈이 시대에 따라 다르며,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늦게 1970년대에 선거권을 가졌고 스위스 출신의 융이 원형을 이야기할 때 스위스 여성의 사회적 맥락의 모습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옛 이야기에는 늘 성과 폭력이 내재해 있는데 이야기가 주는 해결의 메시지도 있지만, 역으로 이야기를 통해 그 사회를 읽어내는 것도 가능하다(주경철,

2005). 신화학자인 고희경 또한 신화나 민담 같은 옛이야기들은 한 사회의 의식과 무의식이 농축된 것이고, 그 속에 '여성이란 이래야 한다'는 가부장적 교시가 교훈이라는 형태로 숨어 있으며 여성주의 시각으로 신화나 동화를 새로 쓰는 작업은 간간이 있어 왔다고 한다(장정일, 2016). 또한 억압된 힘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여성이 내면을 보도록 돕는 데에만 오로지 중점을 두는 식의 접근은 여성이 외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게 하고 자아를 변화시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Enns, 1994; Romaniello, 1992; Walters, 1993). 이런 비판에 따라 노성숙(2005)과 김영숙(1996)은 민담 '바리공주를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여성 주체성의 서사로 해석하는 연구를 시도하였고, 이 연구를 통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이 주체성을 형성해가는 대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여성주의 시각의 가장 핵심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며,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Marecek, 2002; Suyemoto, 2002). 여성주의 정체성(또는 주체성, identity)은 여성과 남성을 서로 차별하지 않고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인간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박애선, 1994). Downing & Roush (1985)은 이 관점에서 '여성 정체성 발달 5단계 모델: 소극적 수용(Passive Acceptance) - 눈뜸((Revelation) - 빠져있음 - 빠져나옴(Embeddedness Emanation) - 종합(Synthesis) - 적극적 참여(Active Commitment)을 제시하였다. Downing은 Erikson은 기존의 정체성 이론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여성이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해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와 문화적 차별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단계인 '소극적 수용'은 여성이 자신에 대한 개인적 제도적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부정하고, 남성과의 관계에서 종속적 위치를 수용하기 쉽다. 2단계인 '눈뜸' 과정에서 여성은 경험에 의해 점차 의식화 되고, 자신에 대한 '억압을 깨닫고 분노'하고 가부장적 권력구조와 협력한 자신의 역할에 죄책감을 느낀다. 3단계 '새겨둠<sup>3)</sup>' 또는 '빠져있음-빠져나옴' 단계에서는 다른 여성과의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증가시키지만, 사회구조가 남성과의 접촉을 완전히 피하지 못하게 하므로, 이 과정은 대부분의 여성에게 어렵다. 여성들이 이 단계를 빠져나옴에 따라 그들은 양극화된 입장을 포기하고 자신을 새 인격으로 재통합하기 시작한다. 4단계 '종합'에서 여성은 유연하고 여성으로서 자기(female self)의 가치를 인정한다. 여전히 사회적 억압을 자각하지만 전통적 성역할을 초월할 수 있고, 잘 정의된 개인적 가치를 토대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남성을 고정관념으로써가 아니라 개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 5단계인 '참여'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입장을 묘사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일하고 '성역할 초월이 가지고 있고 격려되는 목표인 미래를 창조하는 데' 사용한다(Downing & Roush, 1985; Worell & Remer, 2004). 이 단계별 발달 과정에서 여성은 자신 안에 내재된 주도성과 관계성을 적극적으로 발현해내야 한다. Jung의 분석심리학에서는 여성의 내면의 남성성을 아니무스(Animus)로, 남성의 내면의 여성성을 아니마(Anima)라는 원형적 특질로 명명한다(이부영, 2001).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 용어로 설명되는 인간의

3)김민예숙외(2005)에서 빠져있음-빠져나옴을 새겨둠으로 재정의함. 본 연구에서 새겨둠으로 통일함.

기본적인 두 가지 방식을, Bakan(1996)은 '주도성'과 '친교성'으로 설명한다. 여성주의에서는 탈젠더적인 관점의 '수행성(독자성agency)과 친교성(공동성communion)'으로 전환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제안한다(김예숙, 2013). '주도성'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주도적 입장에서 서는 성질이나 특성을 말한다. Miller는 '주도성'이란 적극적이고 자신이 가진 자원을 모두 사용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공격성이라는 의미는 함축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Jordan et al, 2018). Gilligan(1997)은 주도성과 관계성, 독립적인 힘과 관계적인 힘은 대립적이라기보다 상보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가부장제의 성역할 규범은 남성에게는 지나친 주도성을 기대하고 친교성을 억압시키며, 여성에게는 지나친 친교성을 기대하고 주도성이 발현될 기회를 억압시킨다. 이로 인해 주도성과 친교성이 상보적으로 발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민담 '손 없는 처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계모설화 버전을 선택하여 정신분석, 분석심리학적 시각에서 인류의 보편적 상징을 해석해내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그리고 손의 절단을 여성의 통과 의례와 여성성, 모성 콤플렉스, 감정 영역의 희생, 여성주의 언어로 정의했을 때 친교성의 희생이라는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왔다. 본 연구자는 가부장적인 사회가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 특히 돌봄과 희생이라는 친교적 성역할 규범에 충실하도록 키워진 여성들의 '주도성'의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독일 그림형제의 민담 '손 없는 처녀'를 선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그림형제의 버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해외 분석심리학자들에게 의해 주로 연구 되어져왔다. '계모설화와 모성'이라는 이야기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 버

전과 다르게 그림형제 버전은 '절단된 손'이 자라나는 지점에서, '여성의 주도성'이라는 여성주의 시각으로 조명하기에 유의미한 스토리 구조를 지니고 있다. '손의 희생과 재생'을 '주도성의 상실과 재생'으로 연결하여, 여성의 정체성 발달 5단계 모델에 따라 여성이 조건화된 심리를 탈조건화하고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림형제(Brothers Grimm) 민담 '손 없는 처녀'<sup>4)</sup>의 줄거리

『옛날 어떤 방앗간 주인이 있었는데 가세가 점차 기울어 졌다. 결국 작은 방앗간 하나하고 방앗간 뒤에서 자라고 있는 오래된 사과나무를 제외하고 남은 게 한 톨도 없게 되었다. 이런 나날을 보내던 중 하루는 숲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 전에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노인이 다가와 방앗간 주인한테 말한다. “방앗간 뒤에 서 있는 것을 나한테 주면 너를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 줄게” 방앗간 주인의 머릿속에 사과나무가 떠오른다. 노인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잊지마. 3년 안에 내 것 찾으러 갈 거야”

방앗간 주인이 집으로 돌아간다. 아내는 마중을 나와서, “도대체 어찌 된 일죠? 갑자기 부자가 되었어요. 아무도 온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조차 안 가요” 방앗간 주인은 숲에서의 일

을 이야기 하면서 사과나무를 주기로 한 약속을 이야기한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기암을 한다. 방앗간 뒤에서 딸이 비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이 원하던 것이 딸이었으니 노인은 분명 악마였으리라 짐작한다.

착하고 어여쁜 딸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3년을 산다. 그러던 하루, 악마가 왔다. 딸은 깨끗이 목욕을 하고 자기들레에 분필로 원을 그린다. 이게 악마의 접근을 막는 방법이다. 악마는 방앗간 주인한테 자기가 딸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딸 손에서 물을 빼앗으라 한다. 물을 빼앗자 딸은 계속 울어서 눈물로 손을 씻어내어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다. 화가 난 악마는 방앗간 주인한테 딸 손목을 자르라 한다. 방앗간 주인이 놀랐지만 그렇게 안하며 방앗간 주인을 데려 가겠다 위협한다. 방앗간 주인이 딸한테 자기는 할 수가 없다며 용서를 구한다. 딸이 답한다. 자기는 아버지의 딸이니 하셔야만 하는 일을 하라고 그러면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팔은 잘리고 악마는 이 딸한테 세 번째 접근을 시도하나 너무 심하게 울어 눈물로 자른 팔을 씻어 너무나 순결하다. 이 순간 악마도 포기를 한다.

방앗간 주인은 딸의 희생으로 자기들이 부를 유지할 수 있으니 살아있는 동안 딸을 잘 대접 하겠다 한다. 그렇지만 딸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간다. 양팔을 등 뒤로 묶어 자기를 가엽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구걸해 연명한다.

4) 민담 '손 없는 처녀'의 여러 버전 중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독일의 그림형제(Brothers Grimm) 본을 선택하여 줄거리를 요약함(Drewermann, E. 2013).

딸은 종일 걸어 배가 고프다. 그 때 잘 익은 배나무들이 그득한 왕의 과수원을 몰래 보면서 기도를 한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 정원을 둘러싼 수문에 물을 막는다. 처녀는 배를 한 입 베어 먹는다. 왕의 정원사가 이 광경을 전부 지켜본다. 다음날 배를 헤아리던 왕이 하나가 없어진 걸 알아차린다. 사실을 들은 왕은 정원사와 성직자와 함께 다음날 밤 숨어서 과수원을 지킨다. 밤이 깊어지자 천사와 처녀가 같이 나타난다. 성직자가 처녀한테 귀신인지 인간인지 묻자, 처녀는 신의 은총을 제외하고 세상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불행한 인간'이라 답한다. 왕은 처녀를 궁전으로 데려가고 곧 사랑에 빠진다. 그래서 왕비한테 한 쌍의 은 손을 만들어 준다.

해가 지나 왕이 길을 떠나야 해서 어머니한테 어린 신부를 잘 돌보라 부탁하고 왕비가 아이를 낳으면 즉시 편지를 쓰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가 올 때까지 둘 다 잘 돌보라 한다. 왕비는 예쁜 사내아이를 낳았다. 왕한테 편지를 보내나 메신저가 잠을 자는 사이 편지를 가로챈다. 이 후 여러 비극이 일어난다. 악마가 왕한테 편지를 대신 보내는데 거기에는 “태어난 아이가 괴물이다”라고 썼다. 그리고는 왕이 답으로 쓴 편지를 가로채 “왕비와 아이를 즉시 죽여라”라고 한다. 답장을 받고 놀란 어머니는 차마 죽일 수 없어 대신 야생의 자연으로 왕비와 아기를 떠나보낸다.

야생의 터에서 여왕은 다시 기도를 한다. 그러자 구원을 받아 천사가 7년간 돌본다. 그 때까지 신의 은총으로 진짜 손이

자라나온다.

왕이 전장에서 돌아와 왕비와 아이를 찾는다. 어머니는 악마가 쓴 편지를 보여주고 죽이지는 않고 숲으로 보냈다 한다. 왕은 7년간 이들을 찾아 헤맨다. 마침내 왕이 이들을 찾는다. 그런데 왕은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왕비한테 진짜 손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가 작은 집 뒤에서 은 손을 가져와 확인을 시켜준다. 이들을 모두 궁전으로 돌아와 기뻐하며 왕하고 여왕은 또 한번 혼인을 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산다.』

여성주의 시각으로 민담 ‘손 없는 처녀’ 다시 읽기

서구의 설화연구자 Aarne와 Thompson은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야기 패턴을 정리해 민담 분류법을 고안했다. ‘손 없는 처녀’ 민담은 Aarne와 Thompson이 세계 민담을 분류하면서 AT706이라는 유형 번호를 부여하였고, 김현선(2003)은 위 분류에 근거하여 손 없는 처녀를 5가지 핵심적인 서사 단락으로 나누었다.

(1) 처녀가 두 손이 잘린다. / (2) 왕이 처녀를 발견하여 불구자임에 불구하고 아내로 삼는다. / (3) 처녀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함께 다시 쫓겨난다. / (4) 숲 속에서 처녀는 기적에 의해 다시 양 손이 생긴다. / (5) 다시 남편에게 발견 된다.

본 연구자는 위 5가지 핵심적인 서사 단락을 1) 외부 조건의 내면화된 여성심리가 여성의 정체성 발달 5단계 과정과 함께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2) 그와 함께 아버지에 의해 희생되었던 ‘손’과 ‘주도성이 재생되어가는 과



정을 다음과 같은 5가지 구조로 분류하여 여성주의 시각에서 사회적 의미를 함께 보는 해석학적 방법으로 전개하였다.

- (1) 처녀가 두 손이 잘린다.  
: 여성안의 내면화된 가부장으로 인한 상징적인 '손'의 희생과 의존(주도성의 상실/여성 정체성 발달 1단계 소극적 수용)
- (2) 왕이 처녀를 발견하여 불구자임에 불구하고 아내로 삼는다.  
: 원 가족과 분리, 그러나 또 다른 의존으로 (주도성의 회복/여성정체성 2단계 눈뜸)
- (3) 처녀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함께 다시 쫓겨 난다.  
: 절반의 의존에서 다시 분리, 진정한 홀로서기의 시작(주도성의 성장/여성정체성 3단계 새겨둠)
- (4) 숲 속에서 처녀는 기적에 의해 다시 양 손이 생긴다.  
: 지하의 여정, 숲에서의 상징적인 손의 재생(주도성의 확립/여성정체성 4단계 통합)
- (5) 다시 남편에게 발견 된다.  
: 재생된 손으로 만들어가는 연대의 기쁨(주도성과 친교성의 통합/여성정체성 5단계 적극적 참여)

**여성안의 내면화된 가부장으로 인한 상징적인 '손'의 희생과 의존: 주도성의 상실/여성정체성 1단계(소극적 수용)**

『옛날 어떤 방앗간 주인이 있었는데 가세가 점차 기울어 졌다. 결국 작은 방앗간 하나하고 방앗간 뒤에서 자라고 있는 오래된 사과나무를 제외하고 남은 게 한 톨도 없게 되었다. 이런 나날을 보내던 중 하루

는 숲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 전에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노인이 다가와 방앗간 주인한테 말한다. “방앗간 뒤에 서 있는 것을 나한테 주면 너를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 줄게” 방앗간 주인의 머릿속에 사과나무가 떠오른다. 노인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잊지마, 3년 안에 내 것 찾으러 갈 거야”

방앗간 주인이 집으로 돌아간다. 아내는 마중을 나와서, “도대체 어찌 된 일쯤? 갑자기 부자가 되었어요. 아무도 온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조차 안요” 방앗간 주인은 숲에서의 일을 이야기 하면서 사과나무를 주기로 한 약속을 이야기한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기암을 한다. 방앗간 뒤에서 딸이 비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이 원하던 것이 딸이었으니 노인은 분명 악마였으리라 짐작한다.』

이 민담의 시작은 가세가 기울 방앗간 주인이 악마와 부자가 되는 조건으로 '방앗간 뒤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주는 거래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민담의 이야기 속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거래 또한 두 사람이 상징적인 손가락을 걸어서 하는 약속이다. 그런데 딸의 아버지는 자신이 악마에게 딸이 아닌 사과나무를 팔았다고 착각한다. 움 분석가인 Johnson(1993)은 아버지의 악마와의 거래는 물질문명, 외적인 이익에 중요한 감정기능들을 팔아치우는 것이며, 이 거래의 희생자는 아버지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린 딸, 내면의 여성성, 정서나 우울, 불안 같은 감정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치즈코(2012)는 여성을 남성과 동

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여성 멸시, 혐오를 기반으로 조직된 사회를 가부장제라고 부르며, 여성 혐오는 성별이원제 젠더 질서의 깊고 깊은 곳에 존재하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식적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의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본 연구자는 아버지가 소녀와 사과나무를 혼돈한 부분은 이미 “여성의 가치(female self)”를 인정하지 않는 여성 비하와 혐오의 구조 안에서 소녀가 성장해왔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런 구조 속에서 악마와 아버지의 상징적인 손가락을 건 거래에 어머니와 딸의 의견은 고려되거나 참여될 여지조차 없다.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는 아버지 혼자만의 결단은 주도성을 넘어 과도한 욕망, 밀어붙이는 성급함으로 작용한다. 아버지의 독단적 주도성은 공격성과 폭력성을 이미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모른 채 방앗간 뒷마당에서 비질을 하고 있는 딸은 자신의 상징적인 손을 이미 가사 노동이라는 성역할 규범에 충실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민담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손의 상징은 무엇인가?’ Cooper(2007)은 무엇인가를 움켜쥐거나 만들어내고 손동작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등 인간 활동의 대부분이 손에 의하여 완성되기 때문에 손을 ‘전능함’으로 보았다. 이유경(2006)은 외부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내면의 것을 외부로 실현하는 ‘실현상’으로 보았으며, Hill(2016)은 ‘손의 상실’은 주고받는 것, 창조성과 관대함의 상실, 관계에서 상처, 본능으로부터 분리, 무력감이나 절망감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넓게 보았으며, 슬픔과 수치심을 손의 손실과 함께 동반되는 감정으로 보았다. Estes(2013)는 여성들에게 손은 사람을 만지고 누군가를 껴안거나 토닥거리거나 하는 감지기

와 같으며, 손을 통해 상대를 위로하고 달래고 아픔을 치유해주는 모계적 전통으로 보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손이 없는 느낌의 경험’은 여성의 많은 측면의 ‘손실’ 또는 ‘희생’을 나타내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때 우리는 한 손을 들어 올린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표현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을 때도 손을 통해 움켜쥔다. 누군가 내 몸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올 때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경계를 설정하고 밀어낸다.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원하는 글을 쓸 때, 몸과 마음에서 욕구가 올라 올 때 그것을 현실화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즉 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표현하기 위한 ‘주도성, 주체성’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가 아닌 시부모, 남편, 아이, 권위자, 타자만을 위해 자신의 손을 희생적으로 사용해온 여성들은 정작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자신의 손을 사용하는 본능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말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설사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자신의 욕구를 자각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위해 손을 주도적으로 사용해본 경험이 부족한 여성들은 무엇인가를 자신이 결정하고 시도해야 할 때마다 ‘정말 자신이 없어. 확신 할 수가 없어.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누가 대신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자기 의심과 의존을 반복한다. 그런 여성이 보고하는 꿈속 장면은 자신의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결정하고 해결해준다. 결국 여성이 자신의 주도적인 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며, 누구를 탓하며 피해자

와 희생자의 정체성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으며, 세상의 중심에 자신의 두 발과 두 손으로 오롯이 홀로 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의 상징인 것이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로 상징되는 여성으로서의 자기가치(female self)를 알아가고, 뿌리 깊게 가꿔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물을 주고 만져보고 누군가 해치려 할 때 막아내는 지속적인 '주도성'의 발현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녀는 자신의 손을 타자에 대한 돌봄과 가사노동이라는 사회적 성역할 규범에 이미 길들여져서 충실하게 비질을 하고 있다. 자신의 사과나무를 지켜낼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자원의 기반 위에서 있지 못하다. 이 부분은 소녀의 어머니의 침묵과도 연결된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과나무와 딸을 혼동했음을 알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목격하지만, 남편에게 대항해서 딸을 보호하거나 다시 바로잡는 어떤 적극적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나서서 딸을 보호해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Drewermann, 2013). Stone(1997, p. xvi)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오래된 가부장제의 내면화된 규칙과 가치는 많은 부분 우리의 어머니들이 가르쳐준 것들이며, 이 내면 가부장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리를 통제 한다"고 하였다. 딸의 어머니도, 그 어머니의 어머니도 거대한 가부장제의 구조 하에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에게 저항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주도적인 힘을 딸에게 물려주지 못한다. 수천 년 이어져온 이 '주도성의 상실'과 그로 인한 의존이라는 대물림은 딸들에게서 딸들에게로 이어진다.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자신을 위해, 남편에게 반기를 드는데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딸들은 어머니의 이 무력감과 의존성을 꺾하

하면서 거부하지만 또한 무의식적으로 닮아간다. Woodman(1992)은 이 꺾기의 그림자는 너무 무의식 안에 깊게 매장되어 있어서 좀처럼 꿈에서조차 나타나기도 힘들다고 하였다. 가부장제가 부여한 책임이라는 무게 때문에,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조건, 악마에 사로잡혀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정서적으로 빈곤한 상태인 아버지는 사과나무, 여성에 대한 존중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정이 폭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아내와 딸의 결정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다. 그 사과나무가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어머니는 이미 남편에 의존되어 있으며, 동조하거나 침묵하거나 또는 무기력하게 대응한다. 이 견고한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일 매일 무의식적으로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메시지들을 직접적 암묵적 내면의 심리상태로 조건화해 간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질서에 감히 반기를 들지 않는 것, 여자는 어머니처럼 그 질서에 순종하고 의존해야 한다는 것, 사과나무가 잘려도 뒷마당의 비질을 계속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그 메시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매일의 삶 속에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으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떨어지게 된다.

『착하고 어여쁜 딸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3년을 산다. 그러던 하루, 악마가 왔다. 딸은 깨끗이 목욕을 하고 자기둘레에 분필로 원을 그린다. 이게 악마의 접근을 막는 방법이다. 악마는 방앗간 주인한테 자기가 딸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딸 손에서 물을 빼앗으라 한다. 물을 빼앗자 딸은

계속 울어서 눈물로 손을 씻어내어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다. 화가 난 악마는 방앗간 주인한테 딸 손목을 자르라 한다. 방앗간 주인이 놀랐지만 그렇게 안하면 방앗간 주인을 데려 가겠다 위협한다. 방앗간 주인이 딸한테 자기는 할 수가 없다며 용서를 구한다. 딸이 답한다. 자기는 아버지의 딸이니 하셔야만 하는 일을 하라고 그러면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팔은 잘리고 악마는 이 딸한테 세 번째 접근을 시도하나 너무 심하게 울어 눈물로 자른 팔을 씻어 너무나 순결하다. 이 순간 악마도 포기를 한다.』

착하고 어여쁘고 깨끗하고 순수한 딸은 3년이라는 시간동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 어떠한 비난이나 분노도 없이 3년의 시간을 보낸다. 오히려 '자기는 아버지의 딸이니 하셔야만 하는 일을 하라'며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기까지 한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위에 맞서 으르렁 대며 자신의 손톱과 발톱, 이빨을 드러내지 못하는 딸, 가정 내에서 상대적으로 무력의 위치에 있는 여성, 딸들의 분노와 공격성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향하지 않는다. 아들의 경우 분노와 공격성이 자신이 아닌 외부, 타자에 대한 공격으로 향하지만 약자인 여성의 심리적 분노와 공격성은 내부로, 즉 자신의 신체와 내면, 영혼으로 향한다. 이것이 가부장제에서 조건화된 여성의 심리이다.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 화를 내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이며(Greenspan, 1995), 착한 딸, 착한 여자,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집단으로서 부여된 고유한 병이 바로 우울증이다. Lerner(1995)는 여성들이

'나라는 자율적인 사고보다는 '우리'라는 관계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곳에서 분리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정한 의미의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오히려 눈물을 통해 상대방에게 동정과 죄의식을 유발시키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한다. Staal(2014)은 여자가 관계 중심적 시각을 타고나는지 그렇게 사회화되는지는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자들은 사회적 유배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되기 쉽다고 보았다. Toyoda(2006)는 여성들의 손목에 대한 자해 시도를 손목을 잘린 '손 없는 처녀'와 같은 상징의 연장선으로 보았으며, 치즈코(2012) 또한 이렇게 자기 신체를 시궁창에 던져 넣듯 남성에게 바치는 성적 일탈, 섭식 장애, 손목을 긋는 자해 행위는 같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성주의상담에서는 권력을 '내가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의 소유'로 정의하며, 권력을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권력으로 나눈다(김민예숙, 2013).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주로 무력감의 수단을 통해 권력을 발휘한다(김민예숙 외, 2005). 딸은 아버지에 의한 '손의 절단'으로 물리적 권력을 상실하지만, 이것은 '주도성, 주체성'이라는 심리적 권력의 상실을 함께 동반한다. 의존과 희생, 우울과 눈물이라는 피해자에게 허용되는 무기력의 권력사용 방식에 익숙해지게 된다. 정희진(2013)은 젠더 사회에서는 남성은 성공을, 여성들은 불행을 경쟁한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피해자가 될 때만 주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손을 대신할 구원자를 항상 필요로 하게 된다. 이 구조적 부조리함의 원인이 무

엇인지 아직 모르는 맹목적 순진함의 대가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일부를 희생 제물로 바치게 만든다.

이처럼 무력한 방식과 달리 '손이 잘린' 여성이 삶에 적응하는 또 다른 방식은 '힘을 가진 아버지와 동일시'하며 '아버지의 딸'로 살아가는 것이다. 가부장제 아버지의 시선으로 어머니, 여성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신과 다른 존재처럼 그림자 취급한다. 여성들의 태도를 못마땅해 하며 남성들과 외적으로 유대관계를 맺고 남성적 방식에 자신의 삶을 유능하게 적응 시켜 나간다. Murdock(2014, p. 81-82)은 이 지점을 "개인적 차원의 아버지나 사회적 멘토가 충분히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여성들은 갑옷 입은 아마존이 되며 직업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정의 영역이나 관계의 영역에서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내면의 남성적 인물은 '가슴을 가진 남자가 아니라 절대로 멈추지 않는 탐욕스러운 폭군으로, 그녀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멀리, 더 훌륭하게, 더 빨리' 나아가도록 그녀를 몰아낸다. 끊임없이 완벽해야한다는 목소리, 아버지에 의해 동일시된 내면의 악마가 그녀를 채찍질한다" 고 보았다. 힘 있는 남성에게 의존하며, 자신의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순종적인 여성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 외적 영역에서 성공한 여성이 달라 보이지만, 둘 다 부계중심의 가치에 헌신적으로 매달린다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사회에서 용인되는 방식으로만 '손'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욕구를 위한 '손'인 것처럼 스스로도 스스로를 속이며 가짜 자기를 진짜 자기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손이 잘린' 이 단계는 정체성 발달의 1단계인 소극적 수용(Passive

Acceptance) 즉 '눈 감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자신에 대한 어떤 차별도 아직 자각하지 못하고 남성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종속적이며 (Worell & Remer, 2004), 자신의 손, 자신의 주도성에 대해 아직 무의식적인 상태이다. 타인의 욕구는 예민하게 알아차리지만 자신의 욕구(몸, 마음, 감정)은 자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손 없는 처녀' 민담의 다른 버전에서는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자른다고 한다. 아버지의 딸에 대한 성적 학대는 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심각한 침해이다. '절대 안 돼'라고 나의 양 손으로 강력하게 그 침범을 밀쳐내고, 외부에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의지의 발현이 불가능하도록 키워진, 착하고 순응적인 딸의 심리적 손 잘림의 결과이기도 하다.

#### 원 가족과 분리, 그러나 또 다른 의존으로: 주도성의 회복/여성정체성 2단계(눈뜸)

『방앗간 주인은 딸의 희생으로 자기들이 부를 유지할 수 있으니 살아있는 동안 딸을 잘 대접 하겠다 한다. 그렇지만 딸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간다. 양팔을 등 뒤로 묶어 자기를 가엽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구걸해 연명한다.』

손이 잘린 상황에서 딸은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한다. 이 끔찍한 경험이 분리를 촉발시킨다. 손의 상실은 신체 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의 경험이지만, 그로인해 가부장제 아버지의 집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는 결심은

수동적 피해자에서 능동적 생존자로 나아가기 위한 여성의 인격발달의 또 다른 통과의례이다. 주도성이 상실된 상태의 소극적 수용, 눈감은 상태에서 비로소 눈을 뜨고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인식하게 되는 여성 정체성 발달의 2단계 눈뜸(Revelation) 으로의 이행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관계에서 무엇을 상실해야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여성주의 시각이 조금씩 생겨나게 된다. 자신에 대한 억압을 깨닫고 분노하고 가부장적 권력구조와 협력한 자신의 역할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Worell & Remer, 2004). 아버지의 권력아래 조건화되었던 생존의 터전과 부모라는 대상과 분리를 행하기 위해선 내면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큰 폭력적 학대의 경험 이후 처음으로 소녀는 자신 안에 깊게 내재되어있던 주도적 힘을 끌어내어 사용한다. 그러나 아직 손이 없는 소녀는 '가엽게 여기는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는 딸의 심리적 의존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Maja, 2003). 여성들은 두 손이 절단당한 자신의 처지에서 스스로의 두 발로 걸어 나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록 고통 받더라도 익숙한 피해상황 속에 머무르며 두 손을 자른 이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자기 합리화를 끝없이 되풀이한다. 심지어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떠날 수 없다거나 남편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놓아주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그들이 바뀔 것 이라는 순진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다.

『딸은 종일 걸어 배가 고프다. 그 때 잠익은 배나무들이 그득한 왕의 과수원을 몰래 보면서 기도를 한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 정원을 둘러싼 수문에 물을 막는다. 처녀는 배를 한 입 베어 먹는다. 왕의 정원사가 이 광경을 전부 지켜본다. 다음날 배를 헤아리던 왕이 하나가 없어진 걸 알아차린다. 사실을 들은 왕은 정원사와 성직자와 함께 다음날 밤 숨어서 과수원을 지킨다. 밤이 깊어지자 천사와 처녀가 같이 나타난다. 성직자가 처녀한테 귀신인지 인간인지 묻자, 처녀는 신의 은총을 제외하고 세상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불행한 인간』이라 답하다. 왕은 처녀를 궁전으로 데려가고 곧 사랑에 빠진다. 그래서 왕비한테 한 쌍의 은 손을 만들어 준다.』

착하고 순진했던 딸은 원 가족과 분리를 감행한데 이어, 내면의 가부장의 목소리, 금기를 깨며 도둑질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착한 딸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라는 그 질서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겠다는 주도성의 발현이며, 눈물로 호소하던 피해자 정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기 위한 연습이기도하다. 타인만을 돌보던 성역할 규범에 충실해왔던 이전보다는 자기 돌봄의 행위가 점차 증가 한다. 수분이 풍부한 배, 물, 정원, 은이라는 상징들은 아버지에 의해 분리되었던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가치감을 맛보고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Maja(2003)은 왕의 배를 따먹는 도둑질의 이미지는 내면의 약한 소녀가 강한 여성으로 성장했음을, 세상을 향해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의 법칙을 만들기 시작했음을, 그로인해 실제 세계에서도 금지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유경(2006, p. 64)은 “배를 따먹게 되는 순간은 자아가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 태도로 바뀌었던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의식의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보았다. 조건화된 틀 속에서 단 한 번의 저항조차 못하던 딸은, 이제 손을 잘린 이후에야 자신이 처한 맥락을 깨닫고 정체성 발달의 2단계인 눈뜸 과정에서 3단계인, ‘새겨둠’의 과정 사이를 오간다. 새겨둠(Embeddedness Emanation) 단계에서 여성은 여성적인 것, 정서적인 것과의 접촉을 시도하지만 아직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녀에게는 억압으로 작용한다(Worell & Remer, 2004). 그 억압 속에서 은 손이 상징하는 것처럼 절반의 의존과 절반의 주도성이 양립하며 팽팽하게 오간다. 그러나 아직 그녀의 의존은 해결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상징적인 왕, 자신을 구원해줄 힘 있는 남자의 집으로 옮겨간 것이다. 여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백마 탄 왕자가 자신을 구원해줄 거라는 환상적 메시지를 들으며 자라난다. 스스로의 힘으로 굳이 인생의 힘든 여정들을 감행해 낼 필요가 없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다. 그녀가 있는 곳은 왕이라는 강한 남성의 정원이며 그녀의 정원은 아니다. 아버지의 집이 싫어서 떠난 여성들이 또 다시 들어가는 결혼이라는 구조는 다를 것을 기대하지만, 결국 같은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간 것이다. 꿈에 그리던 왕자가 눈앞에 나타나 그녀의 부드러운 머릿결과 연약함을 찬미하며, “네 그 고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하는 속삭임을 건넬 때 그 손길에 속절없이 자신을 내맡긴다. 그 내맡김의 결과, 강한 왕, 권위자에게 선택받은 여성들은 그들을 기쁘게 하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그들이 기대하는

이상적 여성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을 위한 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누군가에게 뽑힌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성들에게 황홀한 경험이며, “난 가치 있는 사람이다”는 일시적 만족감을 맛보게 한다. 잘린 사과나무 대신, 외부에서 부여해주는 여성적 자기 가치감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가 하찮게 여긴 쓸모없는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점점 더 진정한 자신과 멀어지게 된다. 자신의 욕구 찾기와 왕의 질서 사이에서 그녀의 손은 아직 온전하고 자연스럽게 기능할 수 없는 인위적인 ‘은 손’일 수밖에 없다. 왕은 은으로 만든 손을 통해 일시적 편안함을 제공해 주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녀의 수동성을 강화하고 자립할 주체적 기회를 박탈할 뿐이다. 여성 스스로 내면화된 가부장의 목소리를 토해내지 않는 한, 아버지의 집에서 들었던 메시지와 비슷한 소리를 왕의 영역, 배우자에게서도 듣게 된다. 여성이 무엇을 시도하려 할 때 마다 “시부모에게 잘해라” “아이 다 키워놓고 하고 싶은 것 해라”. 그녀의 손은 스스로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 자라난 것이 아니고, 왕이 마련해준 것이며, 소녀의 손의 가치를 몰랐던 아버지처럼 이 왕 또한 소녀의 진짜 손의 필요성에 주목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다. von Franz(1993)에 따르면, ‘은’으로 된 손은 그녀가 나중에 얻는 것만큼 좋지 않지만 그 손으로 그녀는 거의 반은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버지의 질서에 금기를 깨며, 배를 따먹는 시도를 통해 착한 여자의 심리에서 자기 욕망을 따르는 주도성과 자율성이라는 심리적 권력을 조금씩 획득하게 된다.

**절반의 의존에서 다시 분리, 진정한 홀로서**

**기의 시작: 주도성의 성장 / 여성정체성 3단계 (새겨듬)**

『해가 지나 왕이 길을 떠나야 해서 어머니한테 어린 신부를 잘 돌보라 부탁하고 왕비가 아이를 낳으면 즉시 편지를 쓰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가 올 때까지 둘 다 잘 돌보라 한다. 왕비는 예쁜 사내아이를 낳았다. 왕한테 편지를 보내나 메신저가 잠을 자는 사이 편지를 가로챈다. 이 후 여러 비극이 일어난다. 악마가 왕한테 편지를 대신 보내는데 거기에는 “태어난 아이가 괴물이다”라고 썼다. 그리고는 왕이 답으로 쓴 편지를 가로채 “왕비와 아이를 즉시 죽여라”라고 한다. 답장을 받고 놀란 어머니는 차마 죽일 수 없어 대신 야생의 자연으로 왕비와 아기를 떠나보낸다.』

왕이 만들어준 은 손과 왕의 정원에 살고 있던 딸에서 왕비로 성장한 그녀는 결국 다음 단계의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정원이 아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야생의 자연으로 떠나게 된다. 아직도 아버지에 의해 내면화된 소녀 안의, 소녀의 본성의 회복을 가로막는 악마가 무의식적으로 악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왕의 어머니가 그 악마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비를 숲으로 보낸다. 아버지의 질서에 침묵하고 무기력했던 어머니를 경험했던 왕비 안의 어머니, 모성이 이제 가부장의 질서에 'No'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주도적인 힘을 획득한 것이다. 배를 훔친 금기의 영역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정은 가부장 질서가 아닌, 자신의 내적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자신만의 언어를 찾아갈수록 '주도성'이라는 심리적 권

력은 점차 성장한다. Woodman(1992)은 여성들이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상징적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질서와 명령'으로부터 떠나와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 여성은 정체성 발달의 3 단계인 '새겨듬' 단계에 안정적으로 들어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여성은 외부든 내면이든 자신과 연대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심리적, 관계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Worell & Remer, 2004).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희생한 대가로 남성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무력해져 왔던 여성들은, 이 단계에서 스스로 관계를 만들고, 관계적 권력을 창조하고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간다. Miller는 이것을 친교에서의 주도성이라고 한다(Jordan, J. V. et al., 2018). 이렇듯 여성이 절반의 의존이 아닌, 온전한 홀로서기를 할 결심을 할 때 의존했던 내면의 왕과의 이별은 필수적이다. 아내가 인위적인 은 손에 만족할 수 없으며 자신의 진짜 손을 찾는 여정을 떠날 때, 남편 또한 자신의 내적 여정을 떠나지 않고 기존의 질서를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경우, 별거나 이혼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려는 남성들은 여성의 길 떠나는 여정에 엄습하는 불안을 느끼며 “내가 나가봐야 뭘 할 수 있겠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느냐.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며 끝없이 그녀를 회유하고 설득하려 든다. 이 회유와 설득에 흔들리지 않는 힘, 나의 길을 가겠다는 그 확고한 의지의 발현, 그것이 바로 새겨듬의 단계이며 주도성의 강화이다.

**지하의 여정, 숲에서의 상징적인 손의 재생: 주도성의 확립 / 여성정체성 4단계(통합)**

『야생의 터에서 여왕은 다시 기도를 한



다. 그러자 구원을 받아 천사가 7년간 돌본다. 그 때까지 신의 은총으로 진짜 손이 자라나온다.』

그렇다면 야생의 자연, 손이 자라나는 숲에서의 7년이 여성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여성은 숲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Estes(2013)는 숲을 훼손되지 않은 원초적 야성, 본능의 상징으로 보았고, Murdock(2014)은 이 시간을 지하 세계로 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며, 이 여정은 혼돈과 비탄, 소외와 환멸,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자는 여성주의 시각에서 이 야생의 자연을 가부장제가 훼손시키고 폄하시킨, 생명을 품고 낳는 '지구 어머니'의 상징으로 본다. 생태 여성주의(Eco Feminism) 또한 남성의 지배에 의해 이뤄지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 자연에 대한 억압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박영미, 2005; 윤지현, 2005). 지구는 종종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라는 말로 사용되었고, 자연은 항상 어머니 지구, 어머니 대지(Mother Nature)라는 표현처럼 생식하고 양육하며 보살피는 여성적 상징으로 표현되었다(유정길, 2013). 물질문명과 이성, 과도한 성취와 책임, 악마와의 거래에 의해 인류가 잃어가는 자연, 울부짖는 어머니의 공간으로의 이동, 이 시간은 사회가 입혀준 모든 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숲의 영역에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 고독과 은둔이 요구된다. Campbell이 소개한 영웅 신화에서(이인경, 2001), 나무는 '위대한 젖으로 가득한 어머니'의 상징으로 나타나며, Neumann(2009)은 모든 생명을 자신 안에 잉태하는 위대한 대지 어머니는 모든 초목의 어머니이며, 이 초목의 중심에 결실을

맺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으며, 이 나무는 여성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이 내면으로의 하강을 통한 어머니와의 만남의 여정에서 여성은, 가부장제의 질서 속에서 착한 딸,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로 살면서 잃어버린, 거부당한, 억압시킨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 헤매기 시작한다. 외적 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내면화시킨 것(성역할, 가족의 문화와 가치관)들을 찾아내어, 그 미시적, 외적 조건이 어떻게 내적 조건이 되었는지,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내면화 시켰는지, 현재 삶에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를 자각하는 시간이다(김민예숙, 2010). Stone(1997)은 우리를 내면에서 통제하고 있는 가부장제의 낡은 규칙을 남성에게는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제한하는 권력(power), 중요한 게 아닌 당연하게 여겨지는 돌봄과 관계(relationship), 상품화된 섹슈얼리티와 매력, 논리와 이성에 비해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정서의 네 가지 측면에서 재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길들여지고 조건화된 무의식적 메시지를 의식화하고 재명명하는 여정에서, 여성은 자신만의 개별적 자기와 연결된 자신을 느끼며 통합된 강한 그릇 안으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Perera, 2014).

숲의 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마주하는 풍경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그 자리에서 처음 마주하는 풍경은 울창한 숲이 아니라 가부장 아버지의 도끼에 의해 잘려지고 베어진 수천 그루의 쓰러져있는 나무, 피해자와 희생자로 살아온 자신, 그로인한 상실의 실체들을 피하지 않고 온 몸으로 받아내는 시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지조차 못한 채 잘려 버린 두 손. 그로인한 몸과 마음, 정신, 영혼에 가해진 폭력이 남긴 고통스러운 상처를 슬픔과 분노와 비통함과 원망이라는 모든 감정들을

받아내며, 혼자 외롭게 처절하게 견뎌내는 시간. 가부장제의 눈 밖에 날까봐 착한 여자, 강한 여자 가면을 쓰며 사느라, 오직 타인을 위한 손만을 사용하다가 정작 잃어버린 섹슈얼리티, 창조성, 슬픔 외에 허용되지 않았던 풍부한 감정들,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주장할 수 있는 힘, 건강하게 돌보고 주고받으며 관계 맺을 수 있는 법, 가부장 아버지의 시선으로 어머니를 거부하면서 산산 조각내고 분리시킨 여성 자신의 부분들을 되찾기 위해 땅속 깊이 더 내려간다. 이 과정은 철저하게 자신의 두 손의 감각으로 자신의 의지로 헤쳐 나가야 한다. 일본의 용 분석가인 Toyoda(2006)은 수많은 여성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과연 건강한 여성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고 한다. 여성 심혼의 어딘가에서 망각되었고, 다시 회복해야 할 가치가 여성성의 핵심이며, 그 가치가 회복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여성이 진정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김경희(2008)는 여성들이 가부장적 가치관을 견어내고 그동안 인식되지 못해왔던 긍정적 여성성을 인식하며, 여성의 숨겨진 힘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여성으로서의 자기 가치감을 회복하면서 가부장제를 거부 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주도적 여성은, 이제 우리 문화에서 많은 조건화된 남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 안의 여성성과 분리되어 있던 남성적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대한 어머니에게 데려다 줄 창조적인 남성과 새로운 관계를 발달시킬 내면의 공간을 갖게 된다 (Perera, 1981). 여성이 아버지에게서 배우자에게 옮겨갔던 자신 안의 의존성, 무의식적 구원의 판타지를 거둬내고 인생의 모든 책임을 스스로가 지겠다는 주체적 결단을 자아가 내리기 시작하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넌

항상 내 그늘에 있어야해”라고 무의식에서 아무도 모르게 속삭여오던 여성 내면의 가부장적인 남성의 목소리는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 자리에 여성의 인격이 분화되고 분열이 서서히 치유되어 갈수록 내면의 남성상은 파스하게 지혜롭게 그녀를 도울 준비를 한다. “너는 너 자신이고 너는 무엇이든 너의 힘으로 해낼 수 있어. 너는 이미 충분해”. 긍정적이고 조력적인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성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주저함 없이 확신 있게 밀고 나아간다. 내면의 긍정적인 남성성을 만난 여성은, 권력이 있다는 느낌이 갖는 힘조차도 두려워했던(Greenspan, 1995), 과거의 자신을 떠나보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쟁취하고 싶은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관계적 권력을 탐색하고 획득하는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확고해진 주도성은 이제 친교성과 점차적으로 균형을 맞춰간다. 더듬거리는 감각으로 자신의 두 손을 사용했던 그녀는 이제 주저함 없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쟁취할 수 있으며,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다른 한 손을 기꺼이 내밀 수도 있다. 이 과정은 여성 정체성 발달의 4단계 ‘종합(Synthesis)’의 여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여성은 유연하고 긍정적인 여성주의 정체성에 이르고 점차 자신의 여성 자기(female self)의 가치를 인정한다. 또한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억압을 자각하지만 전통적 성역할을 초월할 수 있고 잘 정의된 개인적 가치를 토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남성을 고정관념으로 써가 아니라 개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Worell & Remer, 2004). 자신에 대한 이해는 파트너, 세상에 대한 이해를 동반한다. Jung은 한 개인이 어떤 인간을 돕기를 원한다면 그를 있는

모습대로 받아들여야하며, 개인이 이러한 일을 실행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모습을 직시하고 수용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다(Jung, 1970). 물질문명의 가부장제가 폄하시킨 어머니 생명의 숲에서 7년 동안, 여성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수용을 통해 자신 안의 남성적이면서도 여성적인 두 가지 측면의 본성과 화해하게 된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과도하게 한쪽 측면만을 강조하며 다른 측면을 폄하해왔던 우리 안의 불균형과 그로인한 차별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7'이라는 상징은 한 주체의 개별적 완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손 없는 처녀'의 손이 자라나는 부분에서 다른 버전이 더 발견된다.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 민담에서는 소녀가 샘물에 빠진 그녀의 아이의 손을 잡으려고 애쓰며 손이 자라나는 장면이 있다. 이 버전은 아이의 출산을 원형적 여성성, 자기 내면의 가능성 등으로 볼 수도 있으나, Rich(1995, p. 251)는 "모성의 제도 하에서 모든 어머니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이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죄의식을 느낀다"고 지적했으며, Enns(2009) 또한 여성의 최고 소명으로서의 모성 관념은 백인 유럽의 중심 문화에 깊숙이 박혀 있다고 보았다. 한국 또한 유교 전통과 맞물려 여성들 안에 강력한 모성 신화로 작용하고 있다. 임어진(2013)은 "손 없는 색시는 참된 사랑과 모성의 능력을 감동적으로 보여 주는 아름다운 우리 옛이야기이며, 물에 빠진 아기를 잡으려고 놀라 내뿜은 팔에서 색시의 손이 다시 생겨나는 장면은 지극하고 절절한 모성의 힘을 뭉클한 전율과 함께 느끼게 합니다" 라고 하였다. 원형이라는 특질조차도 사회적 배치와 명확히 구분될 수 없으며, 민담 속에 내재된 시대상

이 주인공에게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 재생된 손으로 만들어가는 연대의 기쁨: 주도성과 친교성의 통합/여성정체성 5단계(적극적 참여)

『왕이 전장에서 돌아와 왕비와 아이를 찾는다. 어머니는 악마가 쓴 편지를 보여 주고 죽이지는 않고 숲으로 보냈다 한다. 왕은 7년간 이들을 찾아 헤맨다. 마침내 왕이 이들을 찾는다. 그런데 왕은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왕비한테 진짜 손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가 작은 집 뒤에서 은 손을 가져와 확인을 시켜준다. 이들을 모두 궁전으로 돌아와 기뻐하며 왕하고 여왕은 또 한번 혼인을 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산다.』

자신 안의 여성적이면서도 남성적인 두 가지 측면의 본성을 이해하게 된 여성은, 반쪽만 기능하는 절반의 인간이 아닌, 조건화된 틀을 벗어던지고 여성들은 남녀 양성적 존재(androgyneous being)로 나아가는 여정에 들어서게 된다(Daly, 1997). 가부장적 공간과 시간에 머물렀던 과거를 떠나보내고, 여성들의 시각과 언어, 감각으로 세상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경험을 Stone(1997)은 자신이 여성적인 에너지를 세상에 가져오는데 더 편해졌으며, 여자였기 때문에 가짜 남성을 모방하려 했었으나, 내면의 가부장제가 변함으로써 여성적인 힘을 가진 여자가 되었고 자신만의 힘과 존재 방식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한다. 여성이 의식적으로 여성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자신 안에서 그 성격을 실현시키면, 배우자와의 관계 또한

그녀가 우세하게 작용하고 진정한 개별적 인격으로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Neumann, 2009). 아버지의 순진한 딸에서, 왕의 아내로 살아가다가, 비로소 숲의 7년 동안 자신의 위대한 가치를 회복함으로써 이제 누구의 아내가 아닌 여왕으로서의 존재감을 획득하게 된다. 자신의 여왕다움을 깨워낸 여성의 내면의 남성성 또한 진정한 삶의 주인인 왕으로 우뚝 서게 된다. 이 하나 되는 통합과 변화를 Daly(1997)는 초월의 신화로 보는데, 자신의 반쪽을 외부의 남성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이 독립성은 심리적으로 남녀 양성적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안의 남성성의 수용, 양성적 인간으로의 통합으로의 변화는 여성들에게 '보완적인' 역할을 중단하고 좀 더 자율적 인간으로 홀로 서려는 투쟁을 요구한다. 이제 민담의 마지막 여정인 이 단계는 여성 정체성 발달 마지막 5단계인 '적극적 참여(Active Commitment)'로 볼 수 있다. 자율적 인간으로 홀로 설수 있는 여성은, 이제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사회가 부여한 성역할을 초월하고 다른 미래를 창조하는 데 이 힘을 기꺼이 사용하게 된다(Worell & Remer, 2004). 어머니의 숲에서, 절대 고독의 시간을 거친 후 다시 세상 속으로 나온 여성들은 자신들의 두 손을 세상에 높게 치켜 올리며 구호를 외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고, 남녀 구분 없이 함께 손을 맞잡고 연대한다. 누군가의 '잘린 손'을 구해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두 손을 내민다. 그녀 안에 자리 잡은 주도성과 친교성은 이제 외부의 기대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이며 조화롭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아버지와 악마의 거래로 인해 손

이 잘린 소녀는 결국, 어머니의 숲에서 자신의 손을 완전하게 살려냄으로써, 가부장제에서 희생당한 조건화된 딸의 심리에서 생명을 준 어머니와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위대한 가치를 주체적 언어로 재생시켜낸다. 외부의 목소리를 걷어내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세상과 함께 손잡고 누군가의 잘린 손을 살려내는 흐름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생된 두 손으로 이뤄내는 연대의 기쁨 일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민담 '손 없는 처녀'를, 가부장제 아버지 아래서 한 여성이 겪는 '손의 잘림과 재생'을 '주도성의 희생과 재생'이라는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여성의 정체성 발달 5단계와 함께 여성심리를 살펴보았다. 원 가족 안에서 자신의 손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여성은, 정체성 발달의 1단계인 소극적 수용 단계에서 자신이 받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가부장제의 규범에 순종하는 의존적인 과정을 보낸다. 아버지에 의해 손이 절단된 후에야 여성은 2단계의 눈뜸 상태로 이행하며,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고 최초로 의존에서 분리를 통해 자신의 손의 주도성을 발현하게 된다. 그리고 왕의 정원의 배를 따먹으며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주도성을 감행하지만 아직 3단계 새겨둠 단계인 그녀는, 의존과 독립 사이에서 갈등하며, 여성적인 힘과 연대하는 자율적 권력감을 획득해 나가게 된다. 다시 완전한 분리를 해야 하는 4단계 종합의 여정에서 그녀는 숲의 7년 동안 자신안의 외적 조건에 의해

내면화된 몸, 마음, 감정의 언어를 해체하고 새로운 자신의 언어를 찾아가고 확립해 나간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의 손은 자라나기 시작하고 아버지에 의해 함께 희생되었던 사과나무, 어머니, 여성성의 영역을 내면의 주도성의 회복, 성장, 확립, 강화의 힘으로 살려내게 된다. 마지막 5단계 '참여'의 여정에서 그녀는 이제 자유롭게 두 손을 사용하며, 세상에 연대의 손을 내민다. 그녀의 양 손은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원하는 것을 기꺼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쟁취할 수 있지만 타인을 침해하거나 희생시키지 않는다. 여성이 희생에서 원 가족과 분리, 다시 배우자에게로의 의존, 또다시 분리와 홀로서기를 통해 자신의 주도성과 손의 재생을 경험하는 과정을, 한국 여성들의 내면에 조건화된 심리를 여성 정체성 발달 단계와 함께 이해하는데 하나의 나침반의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민담이 주는 원형적 메시지 또한 사회적 배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손 없는 처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지만, 또한 그로인해 본 연구는 민담이 갖는 원래의 풍부한 원형적 상징성에 대한 탐구와 확장성을 제한하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이 연구의 민담 '손 없는 처녀'의 모티브를 여성들의 무의식의 꿈들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꾸는 꿈은 개인, 사회, 집단의 무의식을 함께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향후에 한국 여성들이 꾸는 꿈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손이 잘리는 꿈', '손이 강조되는 꿈', '손이 자라나는 꿈', '타인을 위해 자신의 손을 희생하는 꿈', '손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꿈' 등을 이 민담의 단계별 여정들과 연결하여 여성심리의 발달 과정을 조력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참고문헌

- 김경희 (2008). 치유와 성장자원으로써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예숙, 황경숙, 김혜경, 정춘숙, 이문자, 이미혜, 배인숙 (2005).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역사, 실제, 방법론. 파주: 한울.
- 김민예숙 (2010). 여성주의상담의 원리. 제1차 여성주의 상담 워크숍 자료집. 13.
- 김민예숙 (2013). 여성주의 상담: 구조화 모델 워크북. 파주: 한울.
- 김현선 (2003). 손 없는 색시 설화 유형의 비교 설화학적 연구: 세계설화의 비교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11(0), 5-16.
- 김영숙 (1996). 여성중심 시각에서 본 바리공주. 국어문학, 31(73-91).
- 노성숙 (2005). 신화를 통해 본 여성 주체의 형성 바리공주: 텍스트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1(2), 5-37.
- 박영미 (2005). 생태여성주의에 관한 논의. 한국자치행정학보, 19(2), 81-99.
- 박애선 (1994).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수준과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소영 (2007). 독일민담 『손 없는 소녀』의 분석 심리학적 해석과 기독교 영성. 협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연우 (2002). <손 없는 색시> 설화와 여성 의식의 성장. 우리어문연구, 18, 151-171.
- 우에노 치즈코 (2012).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역). 女ぎらい: ニッポンのミソジニー. 서울: 은행나무. (원전은 2010년에 출판).
- 유정길 (2013). 생태여성주의와 여성성의 사회. 현대불교신문 (2013. 02.04).

- 윤지현 (2005). 가이아를 통한 여성성 회복. *중남미연구*, 23(2), 56-69.
- 이부영 (2001). 아니마와 아니무스: 남성 속의 여성, 여성 속의 남성. 과주: 한길사.
- 이유경 (2006). 민담 <손 없는 색시>을 통한 여성 심리의 이해. *심성연구*, 21(1), 38-76.
- 이유경 (2018). 한국 민담의 여성상. 서울: 분석심리학연구소.
- 이인경 (2001).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신화적 성격과 심리학적 접근. *구비문학연구*, 13, 161-195.
- 임어진 (2013). 손 없는 색시. 서울: 한림.
- 장정일 (2016). 장정일, 작가: 43인의 나를 만나다. 서울: 한빛비즈.
- 장휘숙 (2002). 여성심리학. (제2판). 서울: 박영사.
- 정희진 (2013). 페미니즘의 도전. (개정증보판). 서울: 교양인.
- 조현설 (2018). 조현설의 아시아 신화로 읽는 세상. *경향신문* (2018, 6, 28).
- 주경철 (2005). 신데렐라 천년의 여행. 서울: 산치럼.
- Bakan, D. (199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An essay on psychology and religion*. New York: Boston Press.
- Christ, C. Plaskow, J. (2011). 여성의 쉼스러움: 페미니스트 종교비평 에세이. (김명주 역). *Womanspirit rising: a feminist reader in religion*.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원전은 1979년에 출판).
- Cooper, J. C. (2007).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 역).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서울: 까치. (원전은 1987년에 출판).
- Daly, M. (1997).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여성들의 해방 철학을 향하여. (황혜숙 역). *Beyond God the father: toward a philosophy of women's liberation*.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원전은 1973년에 출판).
- Downing, N. E., & Roush, K. L.(1985). *From Passive Acceptance to Active Commitment: A Model of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for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3(4), 695-709.
- Drewermann, E. (2013). 어른을 위한 그림 동화 심리 읽기2. (김태희 역). *Das Madchen ohne Hande: Marchen Nr. 31 aus der Grimmschen Sammlung*. 서울: 교양인. (원전은 1981년에 출판).
- Enns, C. Z. (1994). *Archetypes and gender: Goddesses, warriors,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2), 127-133.
- Enns, C. (2009). 여성주의와 상담: 기원, 주제, 다양성. (김민예숙, 손연주 역). *Feminist theories and feminist psychotherapies :origins, themes, and diversity* (2nd ed.). 과주: 한울아카데미. (원전은 2004년에 출판).
- Estes, C. (2013).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 (손영미 역). *Women who run with the wolves*. 서울: 이루. (원전은 1992년에 출판).
- Gilligan, C. (1997). 다른 목소리로: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허란주 역).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2nd ed.). 서울: 동녘. (원전은 1993년에 출판).
- Greenspan, M. (1995). 우리 속에 숨어 있는 힘: 여성주의 심리상담. (고석주 역). *A new approach to women & therapy*. 서울: 또하나의 문화. (원전은 1983년에 출판).
- Guattari, F. (2004). 정신 분석과 횡단성. (윤수중 역). *Psychanalyse et transversalite*. 서울: 울력. (원전은 1972년에 출판).

- Harrell, M. (2000). (분석심리학적) 여성심리치료: 숨겨진 자기를 찾아서. (김진숙 역). *The Hidden Self: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the Feminine Psyche*. 서울: 베텔스만코리아. (원전은 1983년에 출판).
- Hill, W. A. (2016). *Go Down the Road a Ways, Turn Left: Regrouing Our Symbolic Hands*. Pacifica Graduate Institute.
- Horney, K. (2006). 신경증적 갈등에 대한 카렌 호나이의 정신분석. (이희경, 윤인, 이해리, 조한익 역). *Our inner conflicts*.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45년에 출판).
- Horney, K. (2015). 여성의 심리학. (김세영, 정명진 역). *Feminine psychology*. 서울: 부글북스. (원전은 1973년에 출판).
- Jeanne Marecek. (2002). *Unfnished Business: Postmodern Feminism In Personality Psychology theory*. in M. Ballou and L. S. Brown(eds). *Rethinking Mental Health And Disorder: Feminist Perspectives*(3-28). New York: Guilford Press.
- Johnson, R. A. (1993). *The fisher king and the handless maiden: Understanding the wounded feeling function in masculine and feminine psychology*. Harper: Sanfrancisco.
- Johnson, R. A. (2006). 신화로 읽는 여성성 She. (고혜경 역). *Sbe: Understanding Feminine Psychology*. 서울: 동연. (원전은 1989년에 출판).
- Jordan, J. V. et al. (1991). *Women's Growth in connection: Writings From The Stone Center*. New York: Guilford Press.
- Jordan, J. V. et al. (2018). 여성의 자아: 관계속 자아. (홍상희, 이주연 역). *Women's Growth in connection* 서울: 한울 아카데미.
- Jung, C.G. (1970). *Psychology and Religion: West and East, Collected Works of C. G. Jung, Volume 11*,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st, V. (2015). 동화의 행복법: 다섯 편의 융 심리학적 행복법 해석. (최연숙 역). *Vom gelingenden Leben: Märcheninterpretationen*.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원전은 2000년에 출판).
- Lerner, H. (1995). 무엇이 여성을 분노하게 하는가: 여성, 남성심리. (이명선 역). *The dance of anger*.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원전은 1985년에 출판).
- Maja, S. (2003). 강한 여자의 낭만적 딜레마. (장혜경 역). *Die Sehnsucht der starken Frau nach dem starken Mann*. 서울: 푸른숲. (원전은 2002년에 출판).
- Marecek, J. (2002). *Unfinished business: Postmodern feminism in personality theory*. In M. Ballou and L. S. Brown (Eds.), *Rethinking mental health and disorder: Feminist perspectives*(3-28). New York: Guilford Press.
- Neumann, E. (2009). 위대한 어머니 여신: 인류의 무의식적 심층 속에서 여성의 원형을 찾는 위대한 탐구. (박선화 역). *The Great Mother: an analysis of the archetype*. 파주: 살림출판사. (원전은 1991년에 출판).
- Murdock, M. (2014). 여성 영웅의 탄생: 융 심리학으로 읽는 강한 여자의 자기 발견 드라마. (고연수 역). *The beovine's journey*. 서울: 교양인. (원전은 1990년에 출판).
- Parsons & Bales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Free Press of Glencoe, New York.
- Perera, S. B. (1981). *Descent to the Goddess : a wryy of initiation for women*. Toronto: Inner City

- Books.
- Perera, S. B. (2014). 여신에게로 내려가기. (김소영 역). *Descent to the Goddess: a way of initiation for women*. 서울: 돈화문. (원전은 1981년에 출판).
- Pratt, A. V. (1985). "Spinning among field: Jung, Frye, Levi-Strauss and feminist archetypal theory." in E. Lauter and C. S. Rupperecht(eds.). *Feminist archetypal theory* (93-136).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 Rich, A. (1995).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모성의 신화에 대한 반성. (김인성 역). *Of woman born*. 서울: 평민사.
- Romaniello, J. (1992). *Beyond archetypes: A feminist perspective on Jungian therapy*. In L. S. Brown and M. Ballou (Eds.),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Feminist reappraisals*(46-99). New York: Guilford Press.
- Singer, J. (1994). *Boundaries of the Soul: the practice of jung's psychology* (Rev. ed.). New York: Anchor Books.
- Staal, S. (2014). 빨래하는 페미니즘: 여자의 삶 속에서 다시 만난 페미니즘 고전. (고빛샘, 정희진 역). *Reading women: how the great books of feminism changed my life*. 서울: 믿음사. (원전은 2011년에 출판).
- Stone, S. (1997). *The Shadow King: The Shadow King: The Invisible Force That Holds Women Back*. Lincoln: Nataraj Publishing.
- Suyemoto, Karen L. (2002). *Constructing identities: A feminist, culturally contextualized alternative to personality*: In M. Ballou & L. S. Brown (Eds.), *Retinking mental health and disorder: Feminist perspectives*(71-98). New York: Guilford Press.
- Toyoda, S. (2006). *Memories of our lost hands: Searching for feminine spirituality and creativity*. Texas A&M University Press.
- von Franz, M. L. (1993). *The feminine in fairy tales*. Boston: Shambhala.
- Walters, M. (1993). *The codependent Cinderella and Iron John*. Family Therapy Networker, 17(2), 66-65.
- Woodman, M. (1992). *Leaving My Father's House: A Journey to Conscious Femininity*. Boston: Shambhala.
- Worell, Judith & Remer, Pamela. (2004).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김민예숙, 강김문순 역). *Feminist Perspectives in Therapy Empowering Diverse Women*. 파주: 한울 아카데미. (원전은 2002년에 출판).
- 1차원고접수 : 2018. 10. 23.  
심사통과접수 : 2019. 03. 20.  
최종원고접수 : 2019. 03. 24.



Women's psychology on the folktale of 'The Handless Maiden'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 Based on the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stage model -

Lee Da-gam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women from feminist perspective centering on the text of Brothers Grimm, 'the Handless Maiden'. The folktale, which is universally spread all over the world, is already well known in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women's psychology by demonstrating that the messages of archetypical symbols in folktales reflect the social conditions. The main character's "cutting and regeneration of hands" is linked to the loss and regeneration of the initiative, and it is examined with the model in Downing & Roush's '5 Stage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In the first stage of passive acceptance, the initiative is lost with the cutting of 'hand' by father. In the second stage of revelation, despite the heroine's separation from the father and recovery of the initiative, she depends on the king who makes the hand. In the third stage of embeddedness Emanation, with re-separation and growth of the initiative, the heroine enters the forest. In the fourth stage of synthesis, with the reproduction of the hands, the initiative is established. In the last stage of active commitment, the integration of initiative and friendship occurs with the regeneration of both hands. Through all these processes, the heroine in the folktale deconstructs the language of the body, mind, and emotion which are internalized by the external condition of the patriarchal society, and goes on looking for her own new language independently. It is significant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external conditions on women's inner side and furthermore to feature the process that the initiative, which is the symbol of hand, is subjectively re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tage of development of female identity through women's psychology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Key words* : folktale of the Handless Maiden, Feminism, women's psychology, feminine, Patriarchy, initiative, female identity